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 주의회복이론을 중심으로

윤지인¹·김지혜²

¹경희대학교 교수·²이화여자대학교 강사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restorative environment on place attachment for visitors to Han River Park:
grounded on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Yoon, Jee In¹·Kim, Ji-Hye²

¹Kyung Hee University·²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restorative environment and place attachment at Han River Park.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research is Attention Restoration Theory(ART) initially suggested by Kaplan and his colleagues. We collected the data at the park and finally yielded 633 surveys from the visitors. We performed the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23.0 and Lisrel 8.70. The results showed that a) compatibility positively predicted place identity, b) coherence and compatibility positively influenced place dependence, c) compatibility positively influenced affective attachment, and d) fascination and being away positively predicted social bonding. Among the dimensions of the perception of restorative environment, compatibility was most distinctive predictor of place attachment. Relied on the results suggested by this study, managers and practitioners could make a visitor-oriented management decision to improve the restorative quality of Han River Park.

Key words: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restorative environment, place attachment, han river park

주요어: 주의회복이론, 회복환경, 장소애착심, 한강공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Ji-Hye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jjji1024@hanmail.net

Received: July, 29, 2020 Revised: September, 3, 2020 Accepted: September, 17, 20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여가행동에 중요한 심리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이 야외 여가활동 관련 연구에서 밝혀졌다(강효민, 남재화, 2000; Soga & Gaston, 2016). 특히 최근 도심의 녹지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휴식 공간의 부족이 야기되었고, 도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연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반영운, 윤중석, 정재호, 이태호, 정현근, 백종인, 2008). 최근 야외 여가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수정, 조용준(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 국민의 여가의식이 낮은 편이며, 여가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하기에 여가공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등의 다양한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회복공간으로서의 야외여가장소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엄영숙, 오형나, 2019). 도심의 야외 여가 공간 중에서 한강공원은 서울 내의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송지연, 박진아, 2013), 이용자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최정우, 2008), 및 레저갈등에 대한 연구(김지혜, 원형중, 김미혜, 2011)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긍정적 심리 또는 회복 경험으로의 수변 도심 공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자연을 마주하는 공간에서 마음을 놓고 휴식 및 여가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스트

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을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이라고 하며, 회복환경에 관련된 선행연구(강영애, 이지윤, 이수, 2013; 김무한, 2015; 김진옥, 2015)에서는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을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ART는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람들이 자연환경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이다(이승훈, 현명호, 2003; 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ART에서는 인간이 일상생활 중에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향적 주의(directed attention)이며, 이를 지속할 경우 심리적, 육체적 피로감(fatigue)이 유발되고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Bell, Greene, Fisher, & Baum, 2001). 따라서 이러한 지향적 주의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별다른 집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접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회복환경이라 정의하였다(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회복환경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 심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Korpela & Hartig, 1996; Hartig, Kaiser, & Bowler, 1997a; Hartig, Korpela, Evans, Garling, 1997b)에서는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을 개발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승훈과 현명호(2003)가 PRS를 번안하여 연구에 적용한 바 있다. 회복환경지각의 구성요인은 조화로움(coherence), 매혹감(fascination), 적합성(compatibility), 그리고 해방감(being away)이 있다. 조화로움이란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며, 공간적 여유를 의미하는

범주(scope)와 환경 내 구성요소들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연결성(connectedness)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매혹감은 그 환경이 얼마나 흥미롭고 매력적인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인 적합성은 해당 환경이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일치 정도를 뜻한다. 마지막 해방감 요인은 일상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난 정도 또는 얼마나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환경인가를 측정한다. 이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면 회복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정서 체험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근거로 한 여가활동 지역에서 특정 여가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대한 애착심리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환경심리학 및 여가학 분야에서 장소애착심이라는 현상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하였다(Hidalgo & Hernandez, 2001; Kyle, Mowen, & Tarrant, 2004b). 장소애착심은 특정 공간과 인간 사이의 소속감 또는 유대감을 의미하며, Kyle 등(2004b)의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 공간 안에서 발전될 수 있는 장소애착심이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감정애착 및 사회유대감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여가 장소에서 진정한 자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은 여가장소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감정애착(emotional attachment)은 여가 장소에서 즐거움,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데서 비롯되는 애착심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유대감(social bonding)은 여가 장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인들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애착심을 뜻한다. Drenthen (2009)의 연구에

서는 자연에서 느끼는 회복심리가 애착심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자연공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Rosenbaum, Sweeney와 Windhorst(2009)의 논문에서는 주의회복이론(ART)을 근거로 하여 카페와 같은 사교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회복감이(restoration)이 장소애착심 및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관성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야외 여가 장소와 관련된 회복경험과 애착심의 발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강공원과 같은 자연을 근거로 한 야외 여가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회복환경지각이 한강공원에 대한 장소애착심(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감정애착, 사회유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은 장소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은 장소의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은 감정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은 사회유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야외 여가장소

인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보조원들이 총 6회에 걸쳐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배포 이전에 연구내용과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3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표본수(명)	%
성별	남성	190	30.0
	여성	432	68.3
	결측	11	1.7
연령	평균 28.2세 (SD=8.4)		
직업	학생	404	63.8
	사무직	60	9.5
	자영업	18	2.8
	전문직	47	7.4
	프리랜서	13	2.1
	취업준비	43	6.8
	무직	11	1.7
	기타	24	3.8
	결측	13	2.1
	연평균 소득	1000만원 미만	265
1000-3000만원 미만		99	15.6
3000-5000만원 미만		53	8.4
5000-7000만원 미만		15	2.3
7000만원 이상		12	1.9
결측		189	29.9
교육	초등학교 졸업	33	5.2
	중학교 졸업	125	19.8
	고등학교 졸업	199	31.4
	대학교 졸업	224	35.4
	대학원 이상	38	6.0
	결측	14	2.2
합계		633	100.0%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된 633명 중 남성은 190명(30.0%), 여성은 432명(68.2%)이며 평균 연령은 28.2세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404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 265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24명(35.4%)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연구가설에 포함된 중심 연구 변인인 회복환경지각의 측정을 위하여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을 사용하였다. PRS는 특정한 환경이 개인의 회복감을 느끼는데 얼마나 좋은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이다. 앞서 Hartig 등(1997a)은 주의회복이론(ART)을 기본으로 본 척도를 만들었으며, 이후 강영애 외(2013)가 한강공원에서 회복환경지각과 여가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조사에서 사용된 회복환경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복환경지각 척도는 조화로우음(coherence), 매혹감(fascination), 적합성(compatibility), 그리고 해방감(being away)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하위요인 1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연구가설의 두 번째 중심 변인인 장소애착심의 4가지 하위요인(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감정에착, 사회유대감)은 Kyle, Greafe, Manning, & Bacon(2004a)의 연구에서 사용된 장소귀속감 척도를 통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응답을 받았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한 이후, 여가학 교수 1인과 동일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2인에게 문항 내용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고,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성개념과 연구의 데이터 간의 최적 상태를 확인하고자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중복 적재된 문항들이 있어 회복환경지각의 3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12문항을 사용하였고, 장소애착심 척도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5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의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 회복환경의 요인 적재치는 .652~.826 사이로 나타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224.006$, $df=48$, RMSEA=.076, NNFI=.931, CFI=.950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회복환경지각의 하위요인인 조화로움, 매혹감, 적합성 및 해방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 값은 .637~.785로 나타나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표 2. 회복환경지각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과 문항	M	SD	λ	t	α	CR	AVE
조화로움(coherence)							
한강공원에 오면 혼란스럽다.*	2.675	.9638	.745	16.214	.785	.815	.525
한강공원에 오면 번잡하다.*	3.266	.8133	.674	17.097			
한강공원은 산만하다.*	3.022	.8544	.768	19.994			
한강공원은 무질서하다.*	2.853	.8931	.709	18.180			
매혹감(fascination)							
한강공원에 오면 탐색하고 발견할 것이 많다.	2.767	.8933	.771	16.956	.730	.811	.518
나는 한강공원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3.039	.8642	.704	14.928			
한강공원에 오면 흥미로운 것들이 시선을 끈다.	3.106	.8648	.652	16.366			
한강공원에 오면 주위를 더 둘러보고 싶어진다.	3.337	.8835	.748	16.247			
적합성(compatibility)							
한강공원에 오면 내가 이곳에 속해있음을 느낀다.	2.730	.8923	.826	21.460	.774	.781	.641
한강공원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592	.9041	.775	20.040			
해방감(being away)							
한강공원에 오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3.605	.7819	.686	13.044	.637	.703	.544
한강공원에 오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3.133	.9238	.786	16.148			
적합도 지수	$\chi^2=224.006$, $df=48$, RMSEA=.076, NNFI=.931, CFI=.950						

*역코딩

표 3. 장소애착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과 문항	M	SD	λ	t	α	CR	AV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한강공원은 내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2.455	.8475	.748	17.536			
나와 한강공원은 동일시할 수 있다.	2.194	.9547	.702	19.438	.768	.798	.569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다.	2.512	.9805	.810	23.566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한강공원 만한 또 다른 비슷한 장소는 떠올릴 수 없다.	2.723	.9988	.674	17.802			
한강공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공원은 없다.	2.765	1.0520	.773	21.268	.778	.785	.550
한강공원이랑 비슷한 즐거움을 제공해 줄 있는 장소는 거의 없다.	2.676	.9625	.772	21.242			
감정애착(affective attachment)							
나는 한강공원에 올 때 가장 행복하다.	2.576	.9423	.708	19.921	.773	.775	.535
나는 한강공원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2.360	.9710	.763	22.003			
나는 한강공원에 강한 애착심이 있다.	2.604	.9960	.723	20.482			
사회유대감(social bonding)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강공원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3.338	1.0379	.743	15.321	.711	.757	.512
나는 한강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좋은 추억이 많다.	3.540	1.0032	.783	18.598			
한강공원에서 가족,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 가까워질 수 있다.	3.766	.8507	.610	14.517			
적합도 지수	$\chi^2=246.329$, $df=48$, RMSEA=.082, NNFI=.960, CFI=.971						

장소애착심의 요인 적재치는 .610~.810 사이로 나타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246.329$, $df=48$, RMSEA=.082, NNFI=.960, CFI=.971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적합도 기준치를 만족시켜 각 문항들이 연구모형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11~.778로 측정된 변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문항들의 개념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산출한 결과 CR 값은 모두 .70 이상이었으며 AVE 값도 모두 .50 이상으로 구성개념들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현욱, 이민석, 2018).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8.0을 통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연구모형의 기준타당성 확인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Lisrel 8.70을 사용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의 변인들의 요인구조에 대한 차원성과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는 한편, 회복환경 지각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χ^2 값, RMSEA는 1.00이하, NNFI는 .90이상, CFI는 .95이상이어야 적합한 것으로 설정하였다(최이규, 2005; 홍세희, 2000; Bentler & Bonett, 1980, Hu & Bentler, 1998, MacCallum, Browne & Sagawara, 1996).

Ⅲ. 연구결과

1.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계수는 .211~.721 사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조화로움(1)	1							
매혹감(2)	.211**	1						
적합성(3)	.296*	.560**	1					
해방감(4)	.286*	.469**	.437**	1				
장소정체성(5)	.273*	.387**	.590**	.360**	1			
장소의존성(6)	.251**	.349**	.445**	.326**	.615**	1		
감정귀속(7)	.383*	.436**	.649**	.386**	.721**	.652**	1	
사회적유대감(8)	.379*	.319**	.213**	.320**	.373**	.344**	.374**	1

* $p < .05$, ** $p < .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한강공원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 장소애착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187.280$, $df = 240$, $RMSEA = .078$, $NNFI = .929$, $CFI = .938$ 이었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741.225$, $df = 224$, $RMSEA = .063$, $NNFI = .959$, $CFI = .966$ 으로 나타나 수용기준치를 충족시켰다.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전반적 지수	$\chi^2 (df)/p$	RMSEA	NNFI	CFI
측정모형	1187.280(240)/.000	.078	.929	.938
구조모형	741.225(224)/.000	.063	.959	.966
적합기준	$p \leq .05$	≤ 1.00	$\geq .90$	$\geq .95$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연구모형의 경로 검증

한강공원을 방문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의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beta coefficient: β)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경로	R^2	β	S.E.	가설
적합성(compatibility) → 장소정체성	.621	.830***	.204	가설1부분채택
조화로움(coherence) → 장소의존성	.354	.114*	.056	가설2부분채택
적합성(compatibility) → 감정애착	.729	.933***	.294	가설3부분채택
매혹감(fascination) → 사회유대감	.211	.293**	.124	가설4부분채택
해방감(being away)		.332*	.109	

* $p < .05$, ** $p < .01$, *** $p < .001$

장소에착심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장소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적합성($\beta = .830$, $p < .001$)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에 의한 장소정체성의 설명력은 약 62.0%로 나타났다($R^2 = .621$). 한강공원에 속해있다거나 또는 공원이 라는 공간과 하나가 된다고 느끼고 있을수록 한강공원과 개인이 동일시되는 정체성에 근거한 장소애착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소에착심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장소의존성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조화로움($\beta = .114$, $p < .05$)과 적합성($\beta = .293$, $p < .01$)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하위요인에 의한 장소의존성의 설명력은 35.4%로 나타났다($R^2 = .354$). 이러한 결과는 한강공원이 상대적으로 산만하거나 번잡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한강공원에 대한 일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강공원을 다른 장소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장소의존성의 경향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에착심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감정애착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적합성($\beta = .933$,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2.9%로 나타났다($R^2 = .729$). 한강공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한강공원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감정적 애착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소에착심의 네 번째 하위변인인 사회유대감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매혹감($\beta = .293$, $p < .01$)과 해방감($\beta = .332$, $p < .05$)이었으며, 설명

력은 21.1%로 나타났다($R^2 = .211$). 이는 한강공원에 보다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한강공원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또한 한강공원을 통해 일상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강공원을 연관지어 생각하며 그들과 한강공원에서 많은 시간과 추억을 쌓고자 하는 사회유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의 관계검증을 통하여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도심 주변 공간을 방문하여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조화로움, 매혹감, 적합성, 해방감 등의 다양한 회복심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복환경지각이 한강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강공원 방문객의 장소정체성은 적합성(compatibility)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강공원에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강이라는 장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환경지각의 하위요인인 적합성은 장소정체

성과 그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와의 관계를 거듭하면서 발전되는 자아형성과 관련된 정서적 애착심을 의미하는데, Korpela와 Hartig(1996)는 선호하는 장소에 대한 회복경험의 질이 장소정체성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느끼는 회복지각(perceived restorativeness)이 장소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자아조절(self-regulation)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Korpela와 Hartig(1996)는 회복환경지각의 하위요인 중 적합성이 매혹감, 해방감보다 장소애착심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한강공원 방문객의 장소의존성은 조화로운 적합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장소의존성은 기능적인 만족 또는 여가 경험의 목적을 달성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해당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이다. 여가 참여자들의 기능적 만족에 근거한 장소애착심(장소의존성)은 장소정체성의 발전과 그 의미와 영향력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Kyle, et al, 2004a). 본 연구에서는 장소의존성의 경우 적합성에 의해 예측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도 한강공원이라는 환경이 조화로운(coherence)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소라고 생각할수록 기능적 만족감에 근거한 애착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환경지각의 조화로운은 물리적 환경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뜻하는 하위요인으로써 범주와 연결성과 같은 공간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즉, 공원과 같은 회복환경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완성된 전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문객이 조화로운을

느낄 수 있다(이승훈, 현명호, 2003). 이러한 회복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인식은 자아조절, 정체성, 감정적인 정서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장소정체성의 기능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장소의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강공원 방문객의 감정애착은 적합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공원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심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애착심에는 사회적 요인, 정체성과 관련된 요인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감정애착심은 해당 공간에서 순수하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애착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회복환경지각의 적합성 하위요인은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 중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이란 방문객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휴양적인 정서경험을 의미한다. 일상과는 다른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특별하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다(박민아, 2016). 박민아와 윤세목(2018)의 리조트 회복환경지각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복잡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정돈된 환경에서 느껴지는 적합성이 심리적,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적합성과 감정애착의 긍정적 관계를 뒷받침해 주었다.

넷째, 한강공원 방문객의 사회유대감은 회복환경지각의 매혹감과 해방감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회복환경지각의 매혹감은 장소애착심의 사회유대감에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매혹감이

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특정 환경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고 그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회복환경지각의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여겨진다(박민아, 윤세목, 2018). 이러한 매혹감은 ‘불수의적 주의(involuntary attention)’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재충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환경적 매혹성을 느낄 때 복잡한 정신상태가 맑아지면서 미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박민아, 윤세목, 2018). Rosenbaum & Massiah (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학적 즐거움에 근거한 매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해당 환경을 더 회복적으로 인지하게 한다는 것을 후속연구(Rosenbaum, Sweeney, & Massiah, 2014)에서도 밝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Mayfield(2011)의 연구에서는 시골, 교외, 도심 환경과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고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의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응답자들은 해방감(being away)과 같은 회복환경지각의 인지가 높을수록 장소애착심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도시에 위치한 수변공간의 회복환경지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한정적이었고, 특히 이러한 회복심리가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발전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미 지역의 연구에서는 때때로 장소정체성의 형성에 회복환경지각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살펴본 바는 있었으나(Korpela & Hartig, 1996), 장소애착심의 다른 하위요인들(장소의 존성, 감정애착, 사회유대감)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한편, 야외 여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회복심리가 해당 여가 장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회복심리-장소에착심 간의 영향관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주의회복이론과 애착이론이 여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학문적 의미도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에게 회복공간으로써의 상징적, 기능적 의미가 큰 한강공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방문객의 회복심리, 애착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리자들이 공간조성이나 공원시설환경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공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능한 환경 내에서 그 공간을 어떠한 범위와 연결성을 근거로 하여 조성하는지에 따라 회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방문객의 장소애착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원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수변에 위치한 도심공원으로 잘 알려진 한강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조화로움, 매혹감, 적합성, 해방감)이 장소애착심(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감정애착, 사회유대감)을 발전시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첫째, 장소정체성은 적합성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 둘째, 장소의존성은 조화로움과 적합성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감정애착은 적합성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유대감은 매력성과 해방감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심의 공원 관리계획에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회복환경지각은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리조트, 실버타운, 국립공원 등)에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심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그 맥락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원이나 수도권 안팎의 녹지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야외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공원과 관련된 회복환경지각 및 장소애착심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가 주로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장년 및 노년층에 대한 연구 자료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표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표본추출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모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의 한정 범위에 대한 고려가 향후 연구와 분석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연령층에 대한 회복심리 및 장소애착에 관련된 연구로 그 폭을 넓힌다면 더 다양한 계층의 시각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의 모든 구역, 지구를 포함한 방문객 조사가 아닌 여의도지구를 한정적으로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애, 이지윤, 이수(2013). 수변공원에서의 회복환경지각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8(3), 353-373.
- 강효민, 남재화(2000). 야외 스포츠 활동 참가와 자유인지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3-24.
- 김무한(2015). 주의회복환경에서 본 행태의 장에 관한 연구: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지혜, 원형중, 김미혜(2011). 한강공원의 자전거이용자와 도보산책자간의 레저갈등. *한국체육학회지*, 50(5), 285-294.
- 김진옥(2015). 자연기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환경이 치유관광객의 주의회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민아(2016). 리조트 서비스스케이프, 회복환경지각, 여가만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민아, 윤세목(2018). 리조트 서비스스케이프, 회복환경지각, 여가만족의 구조적 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22(4), 447-474.
- 반영운, 윤중석, 정재호, 이태호, 정현근, 백종인(2008). 광역권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청주시의 구룡공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학보*, 21(3), 185-203.
- 백영민(2017). R를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고급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지연, 박진아(2013).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활동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반포

- 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43-54.
- 엄영숙, 오형나(2019). 미세먼지 건강위험과 회피행동: 야외여가활동수요 감소를 사례로. *경제학연구*, 67(2), 39-70.
- 이승훈, 현명호(2003). 한국관 회복환경지각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8(2), 229-241.
- 최이규(2005).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무역경영사.
- 최정우(2008).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활용한 한강공원 관리운영방안. *도시행정학보*, 21(3), 135-155.
- 최현욱, 이민석(2018). 여가활동 참여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촉진, 여가태도 및 여가 제약협상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4), 13-24.
- 한수정, 조용준(2010).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2(1), 213-232.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61-177.
- Bell, P., Greene, T., Fisher, J. & Baum, A. (2001). *Environmental Psychology*: Lawrence Erlbaum.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Drenthen, M. (2009). Ecological restoration and place attachment: emplacing non-places?. *Environmental Values*, 18(3), 285-312.
- Hartig, T., Kaiser, F. G., & Bowler, P. A. (1997a). Further Development of a Measure of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Working Paper No. 5). Gavle, Sweden: Uppsala University, *Institute for Housing Research*, 5, 1-19.
- Hartig, T., Korpela, K., Evans, G., & Garling, T. (1997b). A Measure of Restorative Quality in Environments. *Scandinavian Housing & Planning Research*, 14, 175-194
- Hidalgo, M. C., &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Kaplan, S.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 Psychology*, 15(3), 169-182.
- Kaplan, R. & Kaplan, S. (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pela, K., & Hartig, T. (1996). Restorative qualities of favorite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3), 221-233.
-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4a).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13-225.
-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b). Linking place preferences with place meaning: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4), 439-454.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yfield, M. (2011). A place just right: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preference for restorative environments. *Award Winning Psychology Papers, 1-22*.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Rosenbaum, M. S., & Massiah, C. (2011). An expanded servicescape perspective.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2*(4), 471-490.
- Rosenbaum, M. S., Sweeney, J. C., & Windhorst, C. (2009). The restorative Qualities of an Activity-Based, Third Place Cafe for Seniors: Restoration, Social support, and Place Attachment at Mather's—more than a cafe. *Senior Housing & Care Journal, 17*(1), 39-54.
- Rosenbaum, M. S., Sweeney, J. C., & Massiah, C. (2014). The restorative potential of senior centers. *Managing Service Quality, 24*(4), 363-383.
- Soga, M., & Gaston, K. J. (2016). Extinction of experience: the loss of human-nature interactions.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4*(2), 94-101.